

내일을 준비하는 힘 상공회의소 자격

박래인 / 비서 1급



비서 1급을 딴 진심이 통했다

“박래인 씨, 여성분이 비서 자격증이 있는 건 많이 봤고 저희가 비서도 채용하고 있는데 다른 직무에 게다가 남자가 비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건 이색적이네요. 만약 입사하게 된다면 이 자격증을 바탕으로 어떻게 업무에 적용하고 활용하실 계획이죠?”
뜨거웠던 7월 여름, 그토록 원하던 공공기관의 합격자 명단에 적혀있는 내 이름을 보던 순간과 첫 출근의 설렘을 나는 아직도 잊을 수 없다. 면접의 마지막 저 질문에 어떻게 대답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내가 비서 1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유와 실제 업무에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진심을 담아서 설명했던 것 같고 그 진심이 면접관에게 통했는지 현재는 한국과학창의재단에 합격해서 이사장님을 모시는 수행비서로 일하고 있다.

늘 존경했던 아버지를 닮고자 준비했던 경찰공무원 시험에서 떨어지고 아무런 목적 없이 살고 있을 때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수행비서라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정치인이나 기업의 임원들의 차량을 운전하며 그들의 수족이 되어 업무나 사적인 일까

지 가리지 않고 돕는 직업을 ‘수행비서’라고 하는 것이다. 듣기 좋으라고 수행비서라고 부르는 것인지 ‘수행기사, 기사, 운전원, 가방 모찌’등 내 직업을 부르는 단어는 무수히도 많다. 내 일은 특별한 것이 없었다. 그저 내 뒤 상석에 앉은 사람이 가자고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오라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면되는 내 의지와 생각은 차단된 체 100% 수동적인, 타인에 의한 타인을 위한 삶을 살면 되는 그런 직업이었다. 그렇게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는 삶을 사는 동안 별을 보고 출근하고 별을 보면서 퇴근했기에 비교적 많은 돈을 벌수는 있었지만 일도 재미없고 보람도 없어 인생을 사는 즐거움이 사라져버렸다. 그렇게 하루하루 돈만 벌며 사는 정신적으로 피폐한 일상의 연속이었다. 그러다가 건강검진에서 좋지 않은 부위가 갑상선암에 걸리게 된 것을 알게 되었고 수술과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서 다시금 내가 사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 고민해보기 시작했다.

나는 프로 수행비서다

어렸을 때부터 나는 공무원이 되고 싶었다. 누군가는 정년보장과 공무원 연금이 공무원의 꽃이라고 이야기했지만 나는 그것이 목적은 아니었다. 나라를 위해서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고 싶었고 누군가를 돕는 일에 행복을 느끼는 나였다. 나는 그런 가슴 따뜻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반복적인 업무에 익숙해지고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급에 매여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잃고 살았던 것이다. 복잡했던 생각을 정리하고 목적을 분명하게 하니 미래를 위해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생각을 바꾸니 행동이 바뀌었고 자연스럽게 내 직업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해보기 시작했다. 물론 이 일이 다른 사람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직업은 아닐지라도 난 분명히 이 일을 잘 수행하고 있었고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이 ‘수행비서’라는 일을 더 잘 할 수 있는 프로가 되기 위해 준비를 하자는 것이었다. 영어회화를 틈틈이 배워 외국인 바이어나 임원을 모실 수 있는 준비도 하였고 수동적인 업무자세가 아니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업무를 마주하려 애썼다.

어떻게 하면 임원이나 바이어를 잘 모실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 비서도 관련 학과가 있고 비서 관련 1,2,3급 국가기술자격 시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비서실무, 경영일반, 사무영어, 사무정보관리의 4과목의 필기시험과 워드프로세서나 컴퓨터 활용능력과 같은 문서작성 능력이 필요한 실기시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생각과 경험으로만 알고 있는 지식을 문서화하여 공부하니 더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고 잘못 알고 있었던 지식으로 업무에 적용해왔던 부분도 알게 되어 공부하면서 얼굴이 화끈거린 적도 있었다.

하지만 내가 비서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시험장에 입실하는 것 자체였다. 아무래도 한국사회에서 비서라 하면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여성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직업이었고 실제 시험장에 일찍 도착해서 시험 응시자들을 유심히 살펴보았는데 역시 예상대로 남자는 거의 보이지 않았다. 그대로 돌아갈까도 고민했지만 열심히 공부한 게 아깝기도 해서 입실마감 시간쯤 고사장에 들어갔는데 30대 중반의 남자가 들어오니 다들 내가 시험 감독관인줄 알고 책을 넣고 나를 쳐다보았다 하지만 난 당당하고 기품 있게 조용히 내 자리를 확인하고 자리에 앉아 마지막 정리했던 요약자료를 펼쳐 공부했다.

그렇게 난 비서 1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고 이 자격증을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주위에 같은 일을 하는 동료들에게 추천하고 있다.

그리고 올해 8월 대한민국의 과학문화 확산과 창의인재 육성의 중심기관인 한국과학창의재단에 합격하여 수행비서로 근무하고 있다. 그리고 업무에 도움이 될 만한 자격시험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 지금은 컴퓨터 활용능력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어제보다는 오늘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은 더 발전하려 노력하는 내 모습이 너무 자랑스럽고 행복하다. 오늘도 난 퇴근 후 밤늦게까지 여전히 공부중이지만 내일을 준비하는 힘이 내게는 있다고 믿는다. 나는 그런 준비된 사람이다.